

행복한 주일학교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음의 아홉 가지 항목을 통해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다음의 항목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는 주일학교에서 교육하고 있고,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교회는 사목자와 함께 이 사목을 수행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청소년 사목 동반자’라고 합니다.

- ①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며,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 ②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
- ③ 나는 미사와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 ④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
- ⑤ 나는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 ⑥ 나는 무엇을 판단할 때, 하느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해 본다.
- ⑦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다.
- ⑧ 나는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 ⑨ 나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만들고자 봉사하고 실천할 수 있다.

우리 성당의 주일학교는 위의 아홉 가지를 삶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가족미사를 통해 가족 사랑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목은 열매를 맺게 하고 청소년들은 가정이 작은 교회이기에 가정에서는 늘 기도와 나눔과 사랑이 넘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천주교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	하고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학생이 원하는 것	주일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주일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일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것	알고는 있지만 못 하고 있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

1. 주일학교 친구들이 성당에서 하고 싶은 것

① 성당에서 노는 것

월1-2회 성당에서 놀다 가기. 파티 많이 하기, 여행 가기

② 캠프 많이 가는 것- 단합력 키우고, 교리외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 캠프에서 교리는 적게. 수영장과 스키캠프 가기.

③ 시설 보완: 노래방 안 됨, 마리아홀 드럼 고쳐 주기, 미사 중 복사가 종을 칠 때 종의 십자가 부분이 흔들린다.

④ 교리를 다양한 활동으로 하는 것

재미있는 교리, 영상 등을 통한 자료 추가, 체험 프로그램, 교리를 퀴즈로

⑤ 성당에 많이 나왔을 때 상을 받고 싶다.ex) 은총표

⑥ 선생님들이 화를 많이 낸다. 동주 선생님과 이산 선생님이 돌아오게 해 주세요.

⑦ 대축일에는 복사들이 연습을 해야 한다.

⑧ 성탄 때 구역별로 공연했으면 좋겠다. 성탄제 때 연극이 재미있었지만 준비과정에서 선생님이 화를 너무 많이 낸다. 이번에 연극하면 작년에 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로 했으면 한다.

2. 성당에서 해야 하는 것들

삼위일체신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미사와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며, 나 자신이 하느님의 작품임에 감사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실천합니다.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주일학교입니다.

2.1. 빛으로 나아가기

주일학교는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실천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하고, 미사를 기쁘게 봉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성체성사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선생님들은 고백성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선생님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신앙 실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① 핵심 가치에 충실하기

성당은 하느님 집이고 기도하는 곳이며, 하느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

는 곳입니다. 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이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이며,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느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모회에서 어머니들이 간식을 준비해 주는 이유는 미사와 기도, 교리에 참여한 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온 청소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며 함께 합니다. 청소년들은 그렇게 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② 감사하기

하느님 자녀는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당연한 많지 않습니다.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미사에 참례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미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모습은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찬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미사 할 수 있음에,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함께 어울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마음과 재능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재물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청소년들은 기도하며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③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어른들은 기도하는 하느님의 자녀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주 미사에 참례하고,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른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당에서 기쁘게 기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른들이 교무금과 주일 봉헌금과 후원금을 내 주시기에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어른들의 정성 담긴 봉헌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계시기에 성당이 성당다워집니다.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곳이 주일학교이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곳이 성당이며 가정이고, 학교입니다.

④ 모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느님 자녀들은 친구들을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성당에서는 편을 가르거나 친구를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정 친구와 친해지면서 편 가르는 행동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과 듣기 좋은 말, 편안한 행동과 하느님 자녀다운 행동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곳이 주일학교입니다.

⑤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자녀로 만나기

주일학교는 하느님 자녀들이 기쁘게 기도하며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하며 우정을 키우고, 한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관심갖고, 나를 친구에게 알려주며, 함께 어울리며 기도하고, 친구와 함께 봉사합니다. 친구의 장점을 보려 하고, 친구를 배려하며, 친구로부터 배려받습니다.

성당에서는 하느님 자녀로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지 특정인과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당에서 이성 교제를 하지 않고 이성적인 마음을 품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성적인 관심으로 친구에게 다가 가면 성당에서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머물 때 반드시 선생님이 함께 하셔야 하며, 캠프나 피정은 기획하지 않으며, 야외 프로그램도 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⑥ 주변 정리하기

하느님 자녀는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고, 기도의 향기가 납니다. 성당은 하느님 집입니다. 머문 자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정리는 어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2.2.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소년

교회는 언제라도 열정을 잃어버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 이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요한 5,44)

이는 곧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는” (필리 2,21) 영적 세속성의 모습입니다.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 복음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교리교사들은 복음이 청소년들과 현대의 구체적인 요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며 자신을 복음화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 경계하며 희생하고 자신의 열정을 봉헌합니다. 교리교사들은 청소년들의 지적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에 집착하지 않고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영적 체험을 통한 하느님 체험이 있는 교리교사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청소년들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도록 이끌고, 성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교리교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청하며, 가르치기보다는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청소년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기도합니다. 영적 세속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리교사들은 신앙의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잘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소년들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속적 가치들과의 충돌과 올바른 소통 방법을 삶으로 보여주고, 시대의 징표를 읽어 내는 분별력과 청소년들의 문화와 삶에 적용되어야 할 그리스도교 윤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사이비 종교와 유사 종교에 청소년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① 거센 풍랑을 마주한 교리교사들

교회안에서 기쁨과 매력을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교회가 제시하는 가치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상황을 마주하는 청소년들의 증가는 교리교사들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사목에 관심이 없는 사목자를 만난 교리교사들은 더 큰 절망감에 빠집니다. 자신 안에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경청할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는 자기중심적 사목 방식으로 청소년 사목을 추진하면 교리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제의 인사이동 때마다 본당 공동체의 모든 사목 형태 (전례, 본당 행사, 각 부서의 예산 편성 등) 가 바뀌게 되니, 본당마다 청소년 사목이 체계화되기 어렵고, 상황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전체가 청소년의 복음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보편 교회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교리교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리교사들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도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Youtube나 게임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교재와 프로그램 다양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다른 쪽으로 발달된 뇌를 가진 청소년들과 교리실이나 성당에 있을 때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체험 위주의 신앙 교육 강화, 세계 시민 의식, 타 종교와 영성에 대한 이해, 가정과 혼인 교육, 생명과 인권 교육,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 등의 주제들은 교리교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반면 대학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 시스템, 대중 매체의 영향,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들, 세속화와 상대주의적 주관주의, 무분별한 소비주의, 부모님들의 신앙에 대한 무관심, 무신론적 성향의 철학적 인문학 등의 유혹은 큰 장애의 벽이 됩니다.

② 청소년 사목 지침의 몇 가지 과제들

교회가 청소년의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은 모든 현세 질서의 개선을 포함하기에,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뿐 아니라,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의 복음화를 뜻합니다**. 하느님 백성인 청소년들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으로써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지침서는 교회가 청소년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이 청소년과 세상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교육적으로 동반하는 사도직 활동을 청소년 사목이라 정의합니다. 청소년 사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청소년 사목은 복음 선교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청소년과 세상의 복음화에 충실하게 이바지해야 합니다.

둘. 청소년 사목의 대상자는 가톨릭 신앙 교육을 통하여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기에, 청소년들이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는 교육적 동반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여정에 함께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사목 활동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고, 공동체 전체가 청소년의 복음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교도권의 가르침’³³⁾에 충실해야 합니다.

넷. 청소년 사목은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별력과 지도력을 지닌 청소년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참되고 고유한 그리스도교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들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에서 유기적인 친교와 공동 책임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여섯. 청소년 사목은 제도권에서 소외된 가난한 청소년들과 위기 상황이나 특수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곱. 청소년 사목은 가정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청소년의 복음화에 힘쓰는 통합적 사목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덟. 청소년 사목은 깊고 풍부한 신앙 안에서 청소년 사목 동반자 를 준비시키고 양성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③ 청소년의 복음화

청소년의 복음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청소년들 또는 여전히 그분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인격적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례와 그 밖의 다른 성사를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더 나아가 복음의 힘으로 그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과 원천, 생활 방식 등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복음화는 청소년을 회개와 신앙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판단하며 그분께서 사셨던 대로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로마 12,2)

바로 사도의 말처럼, 정신과 마음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화를 의미하는 회개와 신앙을 통하여 청소년은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함으로써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가 되며, 바로 이러한 까닭에 교회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년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봉사 사명에 참여합니다.” **청소년은 단순히 교회의 사목적 관심의 한 대상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은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사회 개혁의 참여자로서 교회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공의회도 일찍이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첫째 사도가 되어야 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해야 함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회개와 쇄신으로 자신이 먼저 인도되고 늘 새롭게 복음화되어 참신한 활력으로 다른 친구들을 비롯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리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반하고, 이끌

어 주며,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청소년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안에서 전인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둘째, 청소년이 복음을 깨닫고 기쁘게 전하는 청소년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

셋째, 청소년이 기도와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넷째, 청소년이 가정과 본당과 지역 공동체에 기쁘게 참여하여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동반하는 것

다섯째, 청소년이 연대와 상호 보완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교육하는 것

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제자로 삼아 가르쳐라.” (참조: 마태 28,19-20)

“나의 증인이 되어라.” (참조: 사도 1,8)

“세례를 베풀어라.” (참조: 마태 28,19)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선포, 증거, 가르침, 성사, 이웃 사랑, 이 모든 측면은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복음화 자체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과 세상의 복음화를 지향하는 위의 아홉 가지 주제이고, 주일학교는 이 아홉 가지가 청소년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주고 초대하며 동반합니다.

주일학교는 청소년 사목을 하는 곳입니다.

주일학교는 청소년을 복음화어로 불타오르게 하는 곳입니다.

주일학교는 청소년들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며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 바로 우리들입니다.